

양승태 “재판 관여, 법관 불이익 없었다”

입장 발표서 의혹 강력 부인... 검찰 수사 여부엔 “그때 가서 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한 바 없다”며 “대법원 재판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1일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10분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30여분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하물며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

하거나 거래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얘기는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해 법관들에게 삼한 모욕이 될 것”이라며 “제가 간섭하거나 뭔가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되고 방향이 잘못 잡혔다고 기정 사실화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또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도 순수한 것으로 이를 왜곡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라며 “대법원 재판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지금 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하물며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

다”고 호소했다.

또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상고법원 추진은 대법원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조사에서 이를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지적됐는데 그런 게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어떤 재판에 특정한 성향을 나타낸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며 “누구라도 그것 때문에 인신상 불이익이나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강조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 일어난 일로 사랑하는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와 불행한 사태에 빠진 데 대해 정말 슬프고 안타깝다”며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가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1년 넘게 세 번의 조사가 있었고 여러 개의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지며 400여 명의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는데도 밝히지 못했다. 제가 가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검찰 조사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를 하는가. 그때 가서 보자”며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퇴임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

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9월22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을 조사한 결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화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커졌다.

특별조사단은 이 같은 문건들을 양 전 대법원장이 지시·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두차례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뉴시스

민주·미래·평화정의
“한국당 방탄국회 유감
국회 정상화해야” 촉구

“대립·교착 계속돼
불체포 특권 등
부정적 인식만 각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개 교섭단체가 한국당의 6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공개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상식과 정도(正道)의 정치로 돌아오길 촉구한다”며 “지난달 31일부터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오는 13일 선거일까지 국회가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를 인식하면서도 한국당은 6월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이날 오후 2시를 본회의 집회 시각으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회운영 그 자체보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소속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라며 “이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그 누구도 국회소집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0대 국회 전반기는 국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았다. 국회는 국민이 요구하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잦은 정쟁과 의사일정 거부로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며 “대화과 타협이 사라진 곳에 지루한 대립과 교착이 계속됐다. 오히려 국민에게 ‘불체포 특권’, ‘해의출장’ 등 부정적 인식만 각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이제 후반기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국회는 ‘방탄의 장소’가 아니다. ‘민의를 전당’이자 ‘민생과 개혁을 위한 무한책임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아울러 “상식과 책임 대신 방탄을 택한 자유한국당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한국당의 깊은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6·13 지방선거

민주당 중앙당 선대위 전복 방문

“GM 군산공장 대안 제시할 것”

홍영표 원내대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대위의 지방유세 첫 회의가 1일 김임준 군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선대위 회의에는 추미에 대표를 비롯해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추미에 대표는 “한순간에 직업을 잃고 고통을 겪는 노동자의 눈물, 지역경제의 아픔을 함께하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결코 군산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지엠(GM)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장에 다시 가동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을 포함한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면 더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임준 군산시장 후보는 “강한 시정이 되어 군산을 발전시키겠다”면서 군산 경제를 살리는 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6·13 지방선거 군산시장에 출마한 김임준 후보의 사무실에서 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대위의에서 추미에 상임선대위원장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힘겨워하는 군산지역 민심 위로부터

당 지도부, 경제 회생·선거 필승 머리 맞대
완주·전주·익산·김제 등 차례로 방문 유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1일 첫 지방유세로 한국GM 공장 폐쇄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군산 지역을 방문해 김임준 군산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선거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군산 민심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건넸다.

이날 행사에는 상임선대위원장인 추미에 대표를 비롯해 이해찬 수석선거대책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원내대표 전철철 전북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해 군산 경제 회생과 선거 필승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추미에 대표는 “중앙선대위의 첫 지방 유세를 군산에서 개최하는 것은 군산 경제를 꼭 살리겠다는 집권 여당의 의지를 표현한다”며 “군산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 어려움과 군산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경험 많은 송하진 전북도지사후보와 능력 있는 김임준

군산시장후보 등 힘 있는 집권여당 단체장이 필요하다”며 두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6.13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전북지역 상임선대위원장인 김문덕 전북도당위원장은 “6.13지방선거의 첫 지방 유세로 전북을 선택한 당 지도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결코 전북 도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고 전북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믿는다”고 밝

혔다.

또한 “도민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높은 지지율로 화답해 지방선거의 압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 지도부는 이어 완주(군수 후보 박성일) 봉동읍내와 전주(시장 후보 김승수) 모래내시장, 익산(시장 후보 김영배) 영등동 사거리, 김제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후보들과 유세를 펼쳤다. /김진성 기자

(주)정도산업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